전통사찰 규제완화 등 개선방안 현실화

불교중흥 위한 새 집행부 과제

② 전통문화 보존정책 개선

문화재관람료 개정안 토대
세부근거 마련 및 협의추진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 과제
공원정책 · 사찰전기료 지원
산적한 숙원과제 해법 추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불교계 숙원과제로 지적돼 온 각종 규제법령 및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국립공원 정책 전환 및 전통사찰 보수비용 자부담율 폐지, 복원 예산 확보, 사찰 경내지에 불가피하게 존속돼 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상당부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각 당에서 불교 관련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전통문화 보존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다. 지난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폄훼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만큼, 관련법 개정안은 무리 없이 통과돼 토대는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 및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청래 의원이 입법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화재 관리주체인 사찰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4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관람료 감면 및 지원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감면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세부근거에 대한 협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령에 근거해 문화재 감면에 따른 지원체계 및 방침을 도출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핵심과제로 보수시 자부담 철폐 가능성도 주목된다. 전통사찰 보수를 위한 예산의 20%가 명확한 근거 없이 자부담으로 책정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통사찰 지목 정비 및 미등기 건축물의 양성화도 쟁점사항이다. 전통사찰 경내지가 실제 이용현실과 괴리된 경우가 많아 불사에 어려움이 크고 각종 세금 등에 대한 논란 및 불가피한 불법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사업 계획' 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종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중복규제로 전통사찰을 옭죄는 공원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은 사찰림과 사찰지를 포함한 문화유산 뿐 아니라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각종 법령으로 중복규제에 고통 받아 왔다.

이와 관련 현재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림보호법' 등이 소관위 심사를 통과해 계류 중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 · 관리뿐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사찰림을 안전하게 보호 · 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 ·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37대 집행부는 관련 법안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공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종단 · 정부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방안을 비롯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탑과 부도 전각 내 발견된 성보의 경우 무주물에서 제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 보호구역 내 종교단체가 관리하는 봉안시설 허용),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통사찰의 공익성 고려해 용적율 완화 대상에 전통사찰 추가) 등에 따른 실질적 개선노력도 과제로 남았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공약을 통해 "전통사찰에 관한 각종 중복규제 철폐는 물론 국립공원의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문화재구역 입장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제37대 집행부가 불교계 오랜 숙원과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BBS불교방송 8대 이사장에 덕문 스님

10월 18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BBS불교방송 제8대 이사장으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재단법인 불교방송은 10월 18일 다보원 법당에서 제116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덕문 스님을 선출했다.

덕문 스님은 "불교방송이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지켜봤던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불교가 더욱 발전해야하는 계기를 불교방송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수계했다. 1989년 통도사 선원을 시작으로 7안거를 성만했으며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 · 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과 화엄사 주지를 비롯해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노위는 10월 17일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무연고사망자 합동 추모기도제를 봉행했다.

사노위, 무연고 사망 · 산재까지 대사회행보

10월 17일 합동 추모기도제 봉행
SPC 산재 사고 관련 비판성명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사노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사회 현안에 직접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노위는 10월 17일 파주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무연고사망자 추모의집에서 '1017 빈곤철폐의날,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기도제' 를 봉행했다.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날(10월 17일)을 맞아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 치러줄 사람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극락왕생 발원과 사회구조 변화의 과제를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도회에 앞서 지몽 스님은 먼저 공영장례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과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다양한 이유로 죽어서까지 차가운 창고 같은 건물 속에 있어야 하는 유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면서 "무연고자 공영장례가 사회구성원 누구나 애도받고, 애도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이생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10월 18일에는 평택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애도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인은 10월15일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계에 상반신이 끼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노동계가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강화와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등 각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노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사노위는 성명서에서는 "제품 생산에 무오류, 무결점을 끊임없이 외치는 회사 방침에 앞서 노동자들의 육체 안전사고제로 정신을 으뜸으로 해야한다"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윤을 제일로 하는 경영자세를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서는 산재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3년 만에 열린 종교축제…종교간 화합 증진

한국종교지도자협, 10월 15일 개최
진우 스님, 공동대표의장 추대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0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우리나라 7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 경계를 넘어선 문화 축제의 장을 통해 종교간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종교 간 화합과 유대를 증진을 환기하며 '우리함께 다시!' 를 주제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등 7대 종단 지도자 등 각 종교 대표자들을 비롯해 종교인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생명, 평화, 나눔, 사랑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종교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닌 소중한 서로 간의 존재임을 깨달으며 행복을 찾는 풍성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면서 "우리 종교인은 국민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의 모든 종교는 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 이 세상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날 축제에선 종교 지도자들이 무대에 나와 '화합 세리머니' 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 '평화' '나눔' '사랑' 이라는 퍼즐을 한 글자씩 맞추며 희망 안에 하나 된 세상을 간절하게 발원했다.

한편 진우 스님은 행사에 앞서 진행된 종지협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의장으로 추대됐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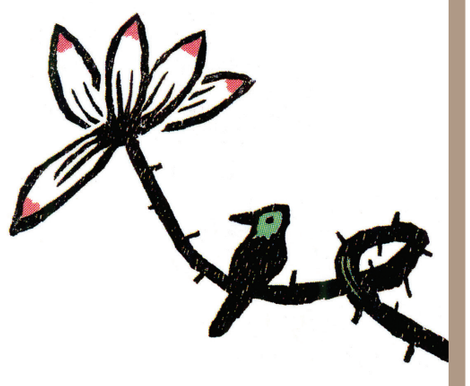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 안내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에서 임인년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8주간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을 합니다. 관심있는 스님들께서는 어렵게 준비한 특강에 많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일 : 11월 26일 (음 11월 3일) 토요일
■시 간 : 오후 3시 ~ 5시까지
■기 간 : 2개월 (매주 토요일)
■강 사 : 이기봉 스님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승교육사, 영산재보존회 연수원장)
■연락처 : 02)392-3234 옥천범음대학 교학처장 박장호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조고담